

한국의 감성과학 :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강 인 구

연암공업전문대학장

1. 한국 감성과학 연구의 태동

일반적으로 공학은 과학이 발전한 후, 이를 활용하는 방법과 과정의 개발 차원에서 발전된다. 그러나 감성과학과 감성공학은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감성과학의 모태가 된 감성공학은 1991년 G7 전문가 기획단에서 '기반기술개발과제'의 7번째 과제로 선정되므로써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과학기술분야 중 감성공학이 G7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 거점기술로서, 국가차원에서 자력확보가 불가피한 기술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외의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스스로 추진하여야 할 기술분야임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하고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인간의 감성연구를 국가가 지원하는 세계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감성공학을 G7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계획은 1991년11월부터 1992년 4월까지 5개월에 걸쳐 수립되었으나, 그 결과는 '연구기획자문위원회'의 평가에서 시행보류 판정을 받았다. 감성공학 연구계획은 연구목표와 도출과제의 합리성등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연구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에서 컨센서스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의 목적과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학문분야 사이의 공동 협력연구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감성과학을 위한 중요한 일들은 이렇게 감성공학이 G7 프로젝트로 선정되지 못한 이후에 일어났다. 많은 학자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감성공학의 학문적 정의와 연구방법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 등 인간의 감성연구를 학문적 입장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업에서의 감성공학 활용노력도 활발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감성공학의 필요성과 효과가 널리 홍보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G7 2차 과제 선정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감성공학은 1996년도에 G7 과제로 정식 채택되었다. 한국의 감성과학은 정부에서 힌트를 주었지만 학문적인 체계확립과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로까지의 발전은 학자들 스스로가 노력하여 정상적인 궤도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2. 감성과학과 관련되는 동향

21세기에 대한 기대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또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의 하나는 '인간성 향상'이라 할 수 있다.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은 인간에게 보다 친근한 제품과 정보미디어의 개발,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인정이

있는 사회건설과 같이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계된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감성지수(EQ)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인식을 들 수 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지능과 전문지식, 빠른 머릿회전, 계산능력등은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계산과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심미적 창조능력과 같은 감성이 학문과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뇌내혁명’(저자: 하루야마 시게오)이라는 책에서는 감성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우뇌의 중요성과 함께 뇌파에서 알파파가 증가될 때 뇌내 물질의 분비가 증가되어 질병의 치유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등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접목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다. 건강의 원인은 마음과 감성이라는 결론이다.

한국의 삼육간호전문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연치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데, 뇌에 알파 엔돌핀을 생성시켜 성인병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음이 신체보다 앞서 있다는 동양의 오래된 학설을 이용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정보의 멀티미디어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제 정보는 숫자나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영상을 통하여 느끼는 단계에 와 있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가까운 정보형태가 된 것이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많은 정보들이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전달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성과 관련되는 기술을 가장 빨리 이용하는 것은 광고이다. 광고는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감성에 호소하고, 제품 자체의 특성보다는 제품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해주어 상품의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 친근감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인간의 감성은 관련영역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여 나갈 것이며, 인간의 생활과 제품을 이용하는 인간-기계-환경의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화를 통하여 물질적 풍요와 신체적 편리함을 체험한 다음은 마음과 정신적인 풍요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따르기 때문이다.

3. 감성과학의 의미

인간의 감성을 연구하는 감성과학은 순수학문이라기 보다는 여러분야의 학문이 공존하며 협동하는 종합과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기존의 학문영역과 중첩된다. 이러한 사실은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감성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므로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는 동시에, 기존학문의 영역을 넓히는 개척정신도 필요하다. 인간 감성의 연구는 기존의 학문이 갖는 여러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한계들의 극복은 아직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감성과학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앞으로 나아갈 길

한국의 감성과학과 감성공학은 다행스럽게도 초기에서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G7 과제, 즉 선도기술개발과제에 감성공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소프트과학과

같은 기초학문분야와 산업디자인과 같은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감성과학의 연구와 활용은 탄탄한 바탕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 산업, 사회, 제품과 시장환경등의 측면에서도 감성과학은 21 세기의 제품과 정보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서둘러 상품개발에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간의 감성을 연구하는 감성과학은 앞서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간감성 연구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마음을 열고 공동, 협동연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학문의 영역을 초월한 교류가 필요하다.

감성과학은 지금까지 서구의 과학이 손 대지 못한 미개척지에 대한 도전이며,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선진국의 기술에 대한 모방과 복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결과를 제품개발과 연계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감성과학과 감성공학의 앞날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밝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발상과 공동, 협동연구, 튼튼한 기초와 제품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활용가능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기대하며,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감성과학자 여러분들이 창조할 인간중심의 감성적 미래 사회를 기대한다.